



호남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무등경기장 야구장(왼쪽)이 지난 2014년 개장한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옆으로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12월까지 무등야구장 활용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무등야구장 활용 3가지 방안 집중 논의

광주시 용역 착수 보고회 12월까지 의견 수렴키로

32년간 타이거즈와 동고동락하며 10승 전설이 쓰인 무등경기장 야구장(이하 무등야구장)은 호남민들의 애환과 환호가 서려있는 공간이다. 정치적 소외지로 숨죽여야 했던 호남민들의 마음을 달래준 공간으로, 지역민들에게는 정치적 격변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개장과 함께 지난 2013년 10월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 무등야구장이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30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회의실에서 열린 '무등야구장 활용방안 용역 착수보고회 및 추진방향 의견수렴회의'에서는 무등야구장 활용 방안에 대해 ▲야구

- ① 일부 존치...시민문화센터 및 체육공원
- ② 외부 원형 존치...야구호텔·지하주차장
- ③ 복합쇼핑몰 및 휴식공간 조성

장 일부 존치 후 시민문화센터 및 체육공원 조성 ▲야구장 외부원형 존치 후 야구호텔 건립과 지하주차장 조성 ▲복합쇼핑몰 및 휴식공간 조성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안은 무등야구장 본부에서 1루 관측석 사이의 건축물만 남겨둔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철거해 시민문화센터 및 문화조경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주차장은 시민문화체육공원화하고, 개방형 그늘막 야구장을 만들어 아마추어 야구인들에게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야구호텔 및 상가 콤플렉스 건축물로 신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야구장 3분의 1 상당의 외부원형은 남겨두고 나머지 공간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아 야구호텔 및 상가 콤플렉스를 짓는다는 것이다. 또 현 야구장 주차장은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다. 일본 미야기 구장, 대구시민운동장, 독일 뉘스부르크 공원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일본 오사카구장(난바파크)을 롤모델로 야구장을 도심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방안도 나왔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체육시설부지를 상업지구로 변경해 복합쇼핑몰, 관광호텔, 레저스포츠타운, 시민복지센터 등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야구장 원형은 그대로 두면서 중앙에는 지상주차장, 외곽에는 야외조경휴식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무등야구장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3가지 안을 기본 토대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야구장 주변 주민과 생활 체육인, 전문가 사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문제 해소, 무등야구장 기능 보존, 도시재생, 시민체육문화공원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최종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한편 지난 1965년 건립된 무등야구장은 대지면적 3만5000㎡, 건축면적 2만931㎡ 규모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파업 들어가나

조합원 찬반투표...市 대책 분주

광주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30일 오후 8시를 기해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하면서 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사 양측이 임금협상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그러나 협상에 나선 양측이 이날 밤 사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 파업 투표를 가결되더라도 파업으로의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30일 광주지역 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조 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이날 오후 8시부터 조합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노조 측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 절차에 따라 전날까지 진행된 3차례의 조정에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표는 7월 1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되며, 마감 후 30분 뒤 개표에 들어간다.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3일부터 6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애초 8.3%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조 측은 6.9%로, 1.5% 인상을 제시한 사측은 2.6%로 각각 조정됐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큰 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30일 밤 노사 양측이 극적 합의안 도출에 성공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더라도 당장 전면 파업의 가능성은 작고, 광주시도 시민편을 최소화하려고 민반의 준비를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건 관계자와 성접촉 광주·전남 경찰 3명 징계

1년간 동료 성폭행·추행도 3건

부산 학교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경찰이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성접촉을 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최근 1년간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직 내 성도덕 파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조직에 대한 엄중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 사건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1명에 달했다. 광주 2명, 전남 1명으로 파악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담당하던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파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B경위는 여성 민원인과 불건전 이성관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5월 갑종 3개월 처분을,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C경위는 여성 민원인과 성관계 등 불건전 이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돼 갑종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동료 여경 및 여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 하는 등 성폭행해 징계를 받은 경찰이 전국적으로 41명에 달했으며, 광주·전남에서는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경찰청 D경장은 지난 3월 동료 여경을 준간간하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돼 파면됐고, 전남지방경찰청 E경위와 F경위는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해 각각 갑종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면세유 불법 유통 완도 금일수협 직원 2명 구속

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한 완도 금일수협 직원들이 구속됐다.

지난 30일 완도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해경은 면세유를 빼돌리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완도 금일수협 직원 김모(55)씨

와 손모(38)씨를 지난 24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최근 3년 동안 면세유를 빼돌려 수협에 5억 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150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술 취해 여학생 성추행하고 말리던 시민까지 폭행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지난 30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황모(43)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30분께 나주시 이창동 영산포공영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

던 여중·고생 3명의 치마를 들추고 만지 뒤 이를 말리던 A(22)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

○...무직인 황씨는 "당시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황씨를 저지한 A씨 등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 /나주=정철원기자 chung@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은닉재산 찾아라

광주지검, 전담팀 꾸리기로

광주 최대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은닉재산 찾기에 나선다.

광주지검은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만 수백명에 피해금액도 수백억원에 달해 수사 방향을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인 합동 수사 체계를 갖춰 1일 대책회의를 연 뒤 본격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인 (주)엔디도시개발 박모(57) 대표 이상의 숨겨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부당한 범죄수익을 어디에 감췄는지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피스텔 중복분양 사기를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된 박씨는 시행사 임직원,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과 짜고 농성동에 신축한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을 534명에게 중복 분양해 3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흥의학박람회장 공사장서 대금 갈등 하청업자 자살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을 짓는 건설사의 하청업자가 원청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7일 오후 11시께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공사장에서 목수 윤모(54)씨가 기둥에 목을 매 숨겨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윤씨는 숨지기 전 가족과 동료에게 "억울하고 미안하다. 가족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1월 한 건설사와 박람회 공사 목공·형틀부분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최근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고민해 왔다. 이날 유족은 경찰에서

"난편이 임금과 건설자재 임대료 대금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고민해 왔다"고 주장한 뒤 공사를 발주한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장흥군을 향의 방문했다.

건설사 측은 "임금이 한 때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모두 지급됐고, 건설자재 임대료 부분도 액수를 두고 의견차가 있어 협의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의 동료, 건설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는 올 가을 박람회 개최를 위해 오는 8월까지 60여억원을 들여 박람회장으로 쓸 건물과 기반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사람찾음

성명: 박영욱(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집을 나설때 열린 보라색 상의 잠바와 옅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발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5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 물건

- [금매] 하남 3지구 상업지역 대지 132평 8차선대로변 전면널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 ▶ 거래가 18억원
- 북구 동림동 동림지구 맞은편 콘도로변 3층근린주택 대지 207평 건물 385평 ▶ 최저 거래가 10억원
- 광양시 광양읍 주공후문 코너 건물 109평 토지 155평 음식점 및 사무실추천 ▶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4억원
-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 숙박시설 사거리 코너 ▶ 감정가 10억원 최저가 5억6천만원 (감정가에56%)
- 담양군 대덕면 2층전원주택 건물 56평 토지 262평 주변환경양호 건물상태최상 ▶ 감정가 2억 최저가 2억

병원, 사옥, 상가, 대지, 창고부지 매매

- 나주시 다시면 창고 건물103평 토지281평 차량전입가능 창고상태양호 ▶ 감정가 1억2백만원 최저가 6천6백만원
- 북구 용봉동 3층원룸 9가구 전대생활관 인근 건물69평 토지 47평 ▶ 감정가 2억6천 최저가 1억8천2백만원
- 서구 쌍촌동 2층단독주택 건물 62평 토지 55평 위치좋은 한국병원인근 ▶ 감정가 1억5천 최저가 1억1천만원
- 광산구 신촌동 4차선 도로변 점포 전시장 및 대리점적합 토지127평 건물120평 투자적합 ▶ 최저가 3억3천2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램**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램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 062-511-1141

시행 1주에이치런 시공 (주)광신종합건설